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1.7.27

미 증시, 기업실적 발표 및 FOMC 기다리며 관망

서상영 sangyoung.seo@miraeeasset.com

미 증시 동향

- 미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FOMC를 기다리며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강보합으로 마감. 한편, 홍콩 증시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기는 했으나, 중국내 개별 이슈라는 점에서 큰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
- 대체로 에너지, 금융업종 그리고 대형 기술주가 상승한 가운데 제약, 바이오, 일부 유틸리티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개별 이슈에 따라 등락을 보인 점도 특징
- 다우 +0.24%, 나스닥 +0.03%, S&P500 +0.24%, 러셀2000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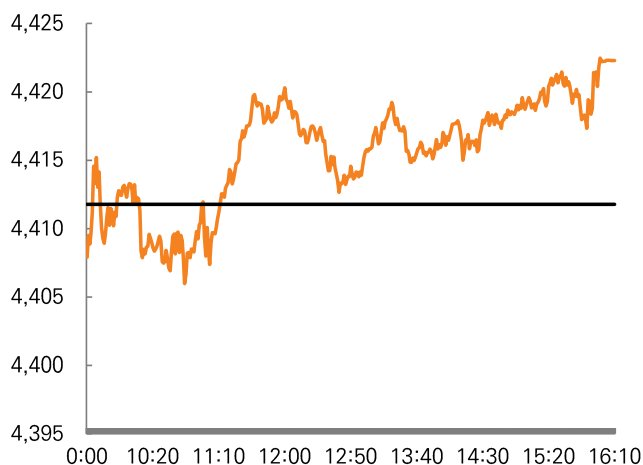
특이 종목

- 하스브로(+12.24%)는 예상을 두배 넘게 상회한 실적과 4분기에 가격인상 발표로 급등
- 썬비디오(+3.87%)는 Five9(+3.75%) 인수는 게임체인저라는 전망 후 상승
- 비트코인 강세로 코인베이스(+9.13%), 마이크로스트레티지(+26.46%) 등 급등
- 엔비디아(-1.35%)는 칩 가격 결정력이 몇 개월 동안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하락
- 테슬라(+2.21%)는 비트코인 급등으로 상승 했고 시간 외 실적 발표 후 1% 상승 중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0.13% MSCI 신흥 지수 ETF는 1.9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3.3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0%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한국 증시는 미 증시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양상을 보여 중국 증시 급락 요인인 미-중 갈등은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되돌림 유입 기대.
- 한편, 전일 중국 증시의 낙폭이 컸으나 7월 30일 예정된 중앙정치국회의 관련 정책 수혜 기대되는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일부 종목 견조한 흐름을 보인 점, 테슬라가 장 마감 후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점은 관련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후 변화에 따라 등락이 예상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3,224.95	-0.91	홍콩항셍	26,192.32	-4.13
KOSDAQ	1,047.63	-0.75	영국	7,025.43	-0.03
DOW	35,144.31	+0.24	독일	15,618.98	-0.32
NASDAQ	14,840.71	+0.03	프랑스	6,578.60	+0.15
S&P 500	4,422.30	+0.24	스페인	8,775.20	+0.67
상하이종합	3,467.44	-2.34	그리스	869.90	+0.63
일본	27,833.29	+1.04	이탈리아	25,296.40	+0.6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중국 증시 급락 원인과 전망

미국 금융시장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및 FOMC등을 기다리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이런 가운데 글로벌 주식시장에 가장 큰 특징은 전일 홍콩 항셱지수가 4% 넘게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점. 이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온라인 서비스 관련 주요 기업들은 물론 사교육에 대한 규제 강화 소식과 미-중 고위급 회담 충돌 사태에 따른 것으로 추정.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데이터 보안 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마찰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내용. 지난 2020년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독 기준 강화를 빌미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 문제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발표로 중국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관련 데이터를 미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음. 이는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중국 정부가 규제를 진행한 것으로 추정. 더 나아가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중국 정부 지도부의 영향력 약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일부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이런 가운데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의 회담을 앞두고 23일 미-중 무역분쟁의 주역 중 하나인 월버 로스 전 미 상무 장관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발표. 여기에 회담이 진행중인 가운데 양국의 충돌 등 지난 3월 알래스카 회담과 비슷한 양상이 진행. 이렇듯 여전히 미-중 무역갈등은 이어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중국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

그렇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8월에 있을 베이징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임이 추진된 이후에는 변화가 예상. 이미 규제 대상 중국 기업들은 경제나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 이를 감안 당분간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나 중국 정부의 관리하에 관련 기업들의 발전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은 이어가야 할 것으로 전망. 특히 중국 공업정보화기술부는 이번 조치는 "공개적이고 안전한 시장 환경을 위해 표준화된 산업 발전을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한 점에 주목해야 할 듯. 이는 중국 정부의 관리를 의미 하기 때문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코인 관련주 급등 Vs. 중국 기업 급락

장난감 제조, 판매 회사인 하스브로(+12.24%)는 예상을 두배 넘게 상회한 실적 발표와 4분기 가격인상 언급 하자 급등. 줌비디오(+3.87%)는 BOA가 Five9(+3.75%) 인수는 게임체인저라는 전망 후 상승. 갭(+2.95%)은 도이체방크가 투자 의견을 Hold에서 Buy로 상향 조정하자 상승. 엑손모빌(+2.52%), 코노코필립스(+2.76%)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가 장 초반 하락을 뒤로하고 낙폭이 축소되자 상승. 아마존이 암호화폐를 결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비트코인은 상승했으며, 코인베이스(+9.13%), 마이크로스트레이티지(+26.46%), 라이엇 블록체인(+21.00%)등이 급등. 테슬라(+2.21%)도 비트코인 급등에 힘입어 상승 했고 시간 외 실적 발표 후 1% 상승 중

엔비디아(-1.35%)는 칩 가격 결정력이 향후 몇 개월 동안 약화될 것이라고 소식이 제기되자 하락한 반면, 인텔(+2.47%)은 반발 매수세 유입되며 상승. 보험 회사인 AON(+8.21%)과 윌리스 타워워트슨(-8.98%)은 미국 규제기관의 반대로 300억 달러 규모의 합병이 취소되자 엇갈린 모습. 홈디포(-0.50%), 로이어스(-1.54%) 등 주택 인테리어 업종과 DR호튼(-1.10%), 레나르(-1.51%) 등 건설업종은 부진한 신규주택 판매 발표로 하락. 알리바바(-7.15%), 진둥닷컴(-8.59%), 바이두(-5.96%), 텐센트 뮤직(-2.97%) 등 중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규제 소식에 하락. 장먼교육(-19.66%), 고투테크에듀(-29.98%), 탈교육(-26.67%) 등 사교육 관련주도 지난 금요일에 이어 급락세가 이어짐. 록히드마틴(-3.34%)는 예상을 소폭 상회한 실적 발표 후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3.07	대형 가치주 ETF (IVE)	+0.43
에너지섹터 ETF (OIH)	+3.62	중형 가치주 ETF (IWS)	+0.29
소매업체 ETF (XRT)	+0.40	소형 가치주 ETF (IWN)	+0.95
온라인소매 ETF (IBUY)	-0.74	대형 성장주 ETF (VUG)	+0.09
금융섹터 ETF (XLF)	+0.58	중형 성장주 ETF (IWP)	-0.41
기술섹터 ETF (XLK)	-0.05	소형 성장주 ETF (IWO)	-0.3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2.87	배당주 ETF (DVY)	+0.64
인터넷업체 ETF (FDN)	-0.09	신흥국 고배당 ETF (DEM)	-0.11
리츠업체 ETF (XLRE)	0.00	신흥국 저변동성 ETF (EEMV)	-0.99
주택건설업체 ETF (XHB)	-0.94	미국 국채 ETF (IEF)	-0.07
바이오섹터 ETF (IBB)	-1.89	하이일드 ETF (JNK)	-0.14
헬스케어 ETF (XLV)	-0.65	물가연동채 ETF (TIP)	+0.43
곡물 ETF (DBA)	+2.34	Long/Short ETF (BTAL)	-0.12
반도체 ETF (SMH)	-0.11	모멘텀 ETF (MTUM)	+0.39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76.34	+2.50	+5.90	-9.97
소재	517.57	+0.88	+3.94	+0.29
경기소비재	1,487.96	+0.77	+4.83	+4.49
통신	277.91	+0.71	+5.71	+5.21
금융	605.89	+0.54	+3.78	-1.44
필수소비재	738.46	+0.19	+0.93	+2.68
부동산	289.26	0.00	+1.71	+3.41
유틸리티	333.98	-0.01	+0.72	+2.59
산업재	875.64	-0.01	+3.82	+1.15
IT	2,712.79	-0.02	+4.20	+6.36
헬스케어	1,522.03	-0.62	+2.64	+3.8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상승 출발 후 개별 기업 실적에 따라 변화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는 0.13% MSCI 신흥 지수 ETF는 1.90%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153.32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0% 상승. KOSPI는 0.5%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한국 증시는 미 증시 강세에 힘입어 상승하기도 했으나 중국 증시 급락 여파로 하락 전환 후 낙폭 확대. 중국 증시는 정부의 규제 강화, 실적 부진, 미-중 고위급 회담 충돌 소식으로 장중 3% 가까이 약세를 보이는 등 변동성이 확대. 이 여파로 외국인인 현/선물 순매도 규모 확대 등 수급적인 요인도 투자심리 위축 요인.

이런 가운데 미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양상을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결국 중국 증시 급락 요인 중 하나인 미-중 갈등 우려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일 한국 증시 하락에 대한 되돌림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물론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낙폭이 컸지만 이는 개별 기업 요인이라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

한편, 전일 중국 증시의 낙폭이 컸으나 7월 30일 예정된 중앙정치국회의를 관망하면서 정책 수혜 기대되는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일부 종목 견조한 흐름을 보인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 테슬라가 장 마감 후 견고한 실적을 발표한 점은 관련 기업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0.5% 내외 상승 출발 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등락이 예상.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신규주택 판매 건수 둔화

미국 6월 신규주택 판매 건수는 지난달 발표(72.4만건)나 예상(80만건)을 하회한 67.6만건을 기록. 주택공급은 6.3개월로 2020년 4월 이후 최대. 중간 판매 가격은 36만 1,800달러로 지난달 발표(38만 700달러) 보다 하락. 5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이 1년전 15%, 5월 24%를 상회한 28%를 기록한 반면, 40만 달러 미만은 1년전 67% 보다는 낮은 57%를 기록했으나 5월의 55%를 상회해 가격 추이가 엇갈린 모습

7월 달라스 연은 제조업지수는 지난달 발표(31.1)이나 예상(32.0)을 하회한 27.3을 기록. 생산지수는 29.4에서 31.0으로, 신규주문은 23.4에서 25.8로, 고용지수 또한 22.9에서 23.7로 개선. 그러나 6개월 후 생산지수는 56.6에서 48.4로, 신규주문은 40.6에서 31.5로 고용도 48.2에서 43.5로 위축

독일 7월 Ifo 기업 환경지수는 지난달 발표(101.7)나 예상(102.1)을 하회한 100.8을 기록. 기대지수는 지난달 발표(103.7)은 물론 예상(103.3)을 하회한 101.2로, 현행지수는 지난 달 발표(99.7) 보다는 양호한 100.4를 기록했으나 예상(101.6)을 하회

”
상품 및
FX시장 동향
”

채권시장, FOMC 앞두고 관망세 짙은 양상

국제유가는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사례 급증으로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며 하락. 이는 미국, 영국 등의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며 글로벌 전체 사례가 두달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추정. 그러나 장 후반 하반기 동안 공급이 타이트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2% 넘게 하락하던 국제유가의 낙폭이 축소되며 소폭 하락 마감

달러화는 주택 지표 둔화와 FOMC를 앞두고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 물론 독일의 ifo 기업 환경지수가 예상을 하회한 결과를 내놓는 등 유로존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는 있으나 달러화의 강세가 최근 이어진 여파로 달러 약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 특히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는 등 하반기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FOMC에서 연준이 비둘기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높아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

국채금리는 주택 지표 둔화와 FOMC를 앞두고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보험권 등락. 특히 지표 둔화와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증가에도 불구하고 2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53배)을 하회한 2.47배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부진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이로 인해 테이퍼링 이슈 완화로 단기물은 하락하고 장기물은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

금은 달러 약세 불구하고 FOMC 앞두고 약보합.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곡물은 여전히 날씨에 대한 전망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 밀의 경우 주요 작황지에 비가 내릴 것이라는 소식에 하락한 반면, 옥수수과 대두 작황지에는 강수량이 많지 않아 토양에 충분한 수분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상승. 더 나아가 달러 약세도 영향.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04% 하락했으나 철근은 0.49% 상승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1.91	-0.22	+8.38	Dollar Index	92.614	-0.32	-0.30
브렌트유	74.50	+0.54	+8.57	EUR/USD	1.1805	+0.29	+0.04
금	1,803.40	-0.14	-0.54	USD/JPY	110.39	-0.14	+0.85
은	25.32	+0.34	+0.69	GBP/USD	1.3822	+0.54	+1.07
알루미늄	2,519.00	+0.66	+3.85	USD/CHF	0.9155	-0.42	-0.22
전기동	9,809.50	+3.08	+6.37	AUD/USD	0.7383	+0.23	+0.53
아연	3,011.00	+1.62	+1.14	USD/CAD	1.2543	-0.17	-1.62
옥수수	546.75	+0.69	-1.00	USD/BRL	5.1767	-0.45	-1.43
밀	677.00	-1.02	-2.97	USD/CNH	6.4822	+0.09	-0.20
대두	1,357.75	+0.44	-1.09	USD/KRW	1,155.00	+0.36	+0.63
커피	207.80	+9.95	+32.86	USD/KRW NDF1M	1,153.32	+0.06	+0.1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1.293	+1.67	+10.42	스페인	0.279	+0.90	+0.40
한국	1.850	-3.20	-12.70	포르투갈	0.201	+1.10	-4.60
일본	0.012	-0.60	-0.30	그리스	0.640	-1.00	-3.90
독일	-0.418	+0.20	-3.20	이탈리아	0.629	+1.10	-8.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